

월요광장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새로 고침’이 가능한가요?

분을 지켜야 할 때임을 안다고.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서 이유를 열 가지도 더 댈 수 있지만 큰 것만 보면 세 가지라고 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사라는 대상이보다는 관리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때에 따라 미움증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학교 선생이 훈육해야 할 아이를 미워할 정도면 이견 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전 신호음이지요. 미움증이 더 들기 전에 ‘나는 교사다’라는 자부심을 간직한 채 떠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였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미래 삶을 책임져야 할 교사다”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 그 고뇌의 모습이 그려졌다.

두 번째 이유는 중입에 들어서면서 학교를 더 이상 성장시킬 동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생각이 부쩍 들었다는 것이다. 판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조직 전체에도움이 되는데,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발만 축내며 있을 수 없었다고. 그분의 성정을 잘 알기에 그 심정을 심본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이상 학교 현장에 계시어야 한다고 때 쓰고 싶었으나 마지막 이유를 듣고는 선생님께 기꺼이 인정보고 응원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스인 조르바처럼은 아니지만, 내 하고픈 일만 하면서 여유자적 살아 보는

것이 꿈입니다. 여기에 어느 순간 도시 문명 탐구서를 10년 기획으로 7권 썬 불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데 7권 전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70대까지 가서는 힘에 부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60대 후반에는 끝내야 완결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 속에 이제 저는 떠납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편지 한 장과 자신이 쓴 도시 문명 탐구서 한 권을 놓고 떠날 스승의 뒷모습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선생님의 소식도 훈훈했다. 그동안 주고받은 제자들의 손편지를 연도별로 묶어 교사로서 지난 삶을 갈무리하고, 책상에 앉아 삼년에 잠겨서 산책을 하시며, 청소년들이 읽을 문명 탐구서를 열심히 쓰고 계셨다. 드나들 때마다 초심을 생각하겠다는 의미로 교장실 입구 작은 탁자에 놓아두셨던 그 목민심서를 오늘은 선생님을 생각하며 정독해 보고 싶어진다.

스스로 때를 정하고 자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체적이다. 그래서 아름답다. 그런 이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서, 한 번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욕망도 커진다. 우리 삶이 컴퓨터처럼 강제 종료 후 재부팅할 수 있거나, F5 버튼을

을 눌러 업데이트를 하거나, 삶을 하드포맷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울까. 습관이라는 안락함과 예측 가능한 삶을 두고 뻔해진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가능하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네 인생 ‘새로 고침’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놓고 친구들과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눴다. ‘열두 발자국’ (정재승, 어크로스)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을 ‘새로 고침’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비결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 그리고 20퍼센트쯤은 열여 두는 삶이라고. “인생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습관이라는 틀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게 디자인돼 있지만, 새로운 목표를 즐겁게 추구하도록 디자인돼 있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수많은 타인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주는 존재들은 우리의 가슴을 다시 두근거리게 한다. 싱겁게 인생을 다시 살고 싶게 만든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견고해진 습관과 권위주의와 낡은 틀과 이별하려는 당신의 삶을 응원하는 이유다.

社說

순직한 의사 윤한덕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

지난 설 연휴 근무 중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어제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엄수됐다. 생전에 윤 센터장과 함께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등 국내 응급 의료 체계 선진화를 이끌었던 이국종 교수는 이날 “응급 의료의 버팀목과 영웅을 잃었다. 아쉽게 죽지 않게 나간 것 같다”며 애통했다. 지난 17년 동안 고인과 함께 응급환자들의 생사를 돌봤던 동료 후배들도 존경하는 상사이자 삶의 멘토를 잃었다는 슬픔에 잠겼다.

향년 51세. 윤 센터장은 생의 절반을 병원 응급실에서 보냈다. 일본일초를 다룬다는 응급 환자들이 피를 튀기고 죽어나가는 그곳을 사람들은 ‘지옥’이라 불렀다. 설 연휴에도 응급 의료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느라 병원을 지켜야 했던 그는 홀로 쓸쓸히 숨을 거둔 뒤에야 비로소 ‘지옥’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해남 출신인 윤 센터장은 광주제일고

를 거쳐 전남대 의대 응급의학과가 생긴 1994년 ‘1호 전공의’로 자원해 응급의학과 전문가가 됐다. 매일 밤낮없이 환자를 돌보던 그는 이후 2002년 중앙응급의료센터 창립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겼고 2012년 7월엔 센터장이 됐다. 설 연휴에도 그는 퇴근을 미루고 혼자 남아 있다가 생을 마감했다. 평소 윤 센터장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아는 가족들은 주말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으레 응급 상황이라니 했을 정도였다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았던 그의 희생을 보냈다. 일본일초를 다룬다는 윤 센터장은 생전에 병원을 선전하다 끝단타임을 놓치는 응급 환자를 위해 응급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이제라도 의료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만이 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일 것이다. 윤 센터장의 명복을 빌다.

5·18 모욕한 한국당 의원들 단호한 조치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행사를 열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5월 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사 진행을 방조한 셈이어서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버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엮고 그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공청회’에는 이완영·백승주·김순례 의원 등과 함께 그동안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를 일삼아 온 지만원 씨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지 씨는 이날 북한군 개입을 거듭 강조하며 5·18 당시 참상을 짚은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에 대해 “북괴가 찍은 사진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하게 한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참석 의원들도 적극 가세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했

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매도했다고 한다. 현직 의원들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차마 믿기 힘든 망언들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제히 비판하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제소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의를 전담인 국회에서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하고 추모하는 5·18에 대해 제1야당 의원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공청회를 연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5·18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고

섬의 날, 다도해, 그리고 목표와 신안



김종식
목포시장

라는 것이다. 목표는 다도해인 서해와 남해의 경계에 가까운 지역에 있다. ‘섬의 관문’,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는 수식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천명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 속에 섬은 존재감과 중요성이 크지 않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강화도 등처럼 관광지, 역사유적지, 일본과 갈등 등과 연결되지 않으면 대체로 이름이나 위치가 낯선 편이다. 다도해 섬의 경우 태풍 북상시 집체 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치는 장면이 뇌리에 깊다. 이처럼 섬은 고립, 소외, 낙후 등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이질감 있는 공간으로 인식에 남아 있다.

반갑게도 이런 인식을 지우고, 대한민국 모든 섬이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재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바로 8월 8일 ‘섬의 날’이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이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정부가 올해 제1회 기념행사 개최지로 전라남도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전라남도 섬의 위상과 상징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제 전라남도가 기념 행사 개최지로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는 결정이 남아 있다. 목표시는 전라남도의 물음에 신안군과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목표시와 신안군은 제1회 개최지로서 마땅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지난 21일 공동 개최 합의를 서명했다. 상징성이 국가 기념일 제정 기여도 등에서 공동 개최는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충분하다.

양 시군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섬을 가장 대표하는 지역이다. 목표는 신안 도서 지역, 제주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구이자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요충지다. 또 서남해 청정해역 수산물의 집결지다. 신안은 섬으로만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로서 76개 유인도에서 주민 모두가 거주한다. 특히 단일 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1004개)을 보유하고 있는 ‘천사의 섬’이다. 목표·신안의 상징성과 제1회 기념행사의 상징성은 이렇게 맞물린다.

섬의 날 제정 기여도도 그렇다. 국내 유일의 섬 연구기관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은 오랫동안 섬의 가치를 재조명해 결국 국가 기념일 제정까지 이끈

일등공신이다. 도서문화연구원과 목표 지역 정치권, 언론, 민간단체 등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섬의 날은 요원했을 지 모른다.

양 시군이 기념행사 개최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중장기적 파급 효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서 목표는 환시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이다.

목표를 비롯한 서남권이 든든한 한반도 평화 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목표시는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에서 발굴한 대형 프로젝트가 국가사업화되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른다면 서남권은 학술고대하던 번영의 새 시대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육지면 최초 재배지’ 고향도, ‘기암괴석의 섬’ 흥도, ‘삼시세끼’ 만재도. 이처럼 목표와 신안에는 저마다 특색 있는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 섬들이 수없이 많다. 섬이 주인공인 첫 번째 잔치가 그들의 중심지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꿈꾸는 2040

정치가 답이다



최희웅
위민연구원 상임이사·사무사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그 효과가 증산층 그리고 상위 계층까지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쳤고, 세계 경제 10위권이란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는 많은 곳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얼마 전 그리스 사태를 지켜보면 재정 확대를 해야 하는데도 국가가 속절없이 투기 자본의 채권 확보를 위해 긴축 정책을 펼쳤다. 국가의 정체성에 의심이 갈 만한 씁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만을 강조하면 증산층, 서민층은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다. 국가는 제 국민을 지킬 수 없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옳다. 근시안적인 낙수 효과란 마약보다는 장기적으로 서민과 증산층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분수 효과가 국가 경제

의 면역력을 높이는 처방이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 대학교 교수는 ‘소득 분배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면서, 기업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고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정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엄청난 거부감이 들것이고 불편할 것이다. 기득권은 두려워할 것이다. 보수 언론·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시키려하고 있다. 국민들은 ‘인지적 포획’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혹여 충성을 앞두고 승리를 위해 선부른 구제 완화와 독점적 지위 등을 인정해 주는 낙수 효과 정책으로 돌아서는 건 안된다. 재정 지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교육, 기술, 기초과학, 미래 기반 시설 등에 투자해야 한다. 자본 이득과 독점 자본(보

조금 포함)에 과세해 조세의 공정성을 세워야 한다. 하위 계층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 실업 급여, 의료, 복지 등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광주만 보더라도 독점적 자본은 아무런 경쟁 없이 독점적 지위로 시장 수익률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곳이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와 해양도시가스다. 이윤이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쟁을 통한 경영의 성과여야 한다.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점적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 다른 경쟁 사업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최저 임금이 문제라면 근로 장려 제제로 노동자의 실질적 소득을 높여주고 최저 임금은 속도조절을 하면 될 문제다. 결국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답’이라는 얘기다. 후퇴하지 말자.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성취를 위해 정치가 보다 담대해지자. 정치가 보다 직진하자. 결국 정치가 해결자다.

無等鼓

중국의 고전 회남자(淮南子)에는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떠오른 이야기가 나온다. 향아(嫦娥)와 남연(南燕)은 본래 천상의 신이었다. 어느 날 열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올라 세상이 온통 타들어가자 예가 아홉 개의 해를 활로 쏘아 떨어뜨려 세상을 구했다. 문제는 그 해일이 천제(天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진노한 천제는 예 부부를 인간으로 격하하고 지상으로 내쳤다.

지상으로 쫓겨난 향아는 천상의 생활을 늘 그리워했다. 인간

간 향아)이라는 고사다. 영원히 홀로 살아야만 하는 향아가 불쌍했던지 중국인들은 외로움을 달래 줄 반려동물로 토끼를 등장시킨다. 중국의 시선 이백은 ‘파주문월’ (把酒問月)을 붙잡고 달에게 묻는다)이라는 시에서 “월 토끼는 사철 내내 약방이를 찢고, 향아 선녀는 외로이 살며 누구와 이웃할까”라며 향아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한다.

달이 지구의 위성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중국은 달에서 살아가는 향아와 토끼를 잊지 않았

4000년의 고독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경원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